

# LG이노텍, 2분기 영업익 1517억 “고성능 제품·원가개선 활동 영향”

계절적 비수기 뚫고 ‘깜짝 실적’  
매출 4조5553억 전년비 16.6% ↑  
고부가 확대·원가개선 수익성 ↑  
하반기 애플 신제품에 수요증가 전망

LG이노텍이 ‘계절적 비수기’를 뚫고 올해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고성능카메라 모듈 등 주력고객사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내부 원가개선 활동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LG이노텍이 올 2분기에 매출 4조 5553억원, 영업이익 15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6%, 726.2% 증가한 수치다. 순이익도 989억원으로 4천 684.14% 늘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수치다.

계절적 비수기에도 전방 IT 수요가 개선되면서 광학솔루션 및 기관소재사업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또 고부가 제품 공급 확대와 적극적인 내부 원가개선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됐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LG이노텍 전 사업부가 호실적을 냈다.

카메라 모듈 사업을 맡고 있는 광학솔루션사업은 고성능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3조6천80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관 사업 담당인 기관소재사업은 13% 증가한 378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는 15% 올랐다. 스마트폰 전방 수요 개선으로, RF-SiP 등 스마트폰용 반도체 기관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전장부품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LG이노텍 구미사업장 전경.

/LG이노텍

2%, 전 분기 대비 1% 증가한 496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장부품사업은 특히 자율주행·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DAS)용 차량통신 부품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올렸다.

앞으로 LG이노텍은 센싱·통신·조명 모듈 등 전장 핵심부품과 FC-BGA 등 고부가 반도체 기관을 앞세워 사업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지환 LG이노텍 CFO(전무)는 “디지털 제조공정 혁신과 생산운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 제품 중심 사업을 강화해 수익 기반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센싱·통신·조명 모듈 등 전장 핵심부품,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와 같은 고부가반도체 기관을 앞세워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 고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가는 LG이노텍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판매량 호조로 LG이노텍 올해 연간 영업

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이폰 16 시리즈(9월 출시 예정)의 판매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이폰 교체 수요를 추가 반영하면 실적 상향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조16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39.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최준원 신영증권 연구원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핵심 고객사의 중국 내 대규모 프로모션 효과 및 신규 아이폰 출시에 따른 교체수요 촉진 영향으로 2분기 스마트폰 롱테일 수요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2분기 환율 효과로 원화 수익성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도 하반기에는 LG이노텍의 실적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이 오는 9월 AI 인텔리전스를 채택한 아이폰16을 내놓으며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한화시스템, ‘UH/HH-60’ 성능개량 추진

KAI와 판보로 에어쇼서 MOU

한화시스템이 23일(현지시간) 영국 판보로 에어쇼 현장에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UH/HH-60 성능개량 사업 추진을 위한 배타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여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와 강구영 KAI 사장을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UH/HH-60 성능개량사업은 육군과 공군의 특수작전용 헬기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과 지속적 운용을 목적으로 항공전자시스템 디지털화 및 통합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 및 양산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KAI는 향후 UH/HH-60 성능개량사업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며, 주관업체로 항공기의 체계 개발·통합을 주도한다.

한화시스템은 참여업체로 항공전자시스템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다.



KAI 강구영 사장(왼쪽), 여성철 한화시스템 대표가 판보로에어쇼에서 UH·HH60 성능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MOU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I

양사는 이번 성능개량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수리온 성능개량과 수출, 소형무장헬기(LAH) 수출, 차세대기 동헬기 개발 등 많은 헬기 사업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한화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것”이라며 “향후 협력을 확대해 수리온, LAH 등 국산 헬기의 글로벌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LGU+, 기아 EV3 모델에 차량용 게임 제공

웹 형태 기반 ‘게임포털’ 상용화

LG유플러스가 차량용 게임 시장을 개척한다.

LG유플러스는 새롭게 개발한 웹 기반 차량용 게임 서비스 ‘게임포털’이 기아 전기차 모델 더 기아 EV3를 통해 처음 상용화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LG유플러스가 개발한 게임포털은 차량용 게임 서비스로, 국내 브랜드 차량에서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기아와의 협업을 통해 상용화된 게임포털은 웹 형태를 기반으로 제작돼 개별 게임 앱을 다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케이드 게임’이라는 명칭으로 더

기아 EV3에 적용된 게임포털은 모바일 게임 전문기업 ‘모비릭스’의 인기 게임인 ‘타워디펜스킹’, ‘벽돌깨기퀘스트’, ‘마블미션’ 등을 비롯해 총 8종의 게임을 제공한다.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아 커넥트 스토어’ 웹페이지에서 아케이드 게임의 디지털 사양을 구매하면 된다. 안전을 위해 운행중에는 조작할 수 없으며, 잠깐 정차중이거나 충전 중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더 기아 EV3 자체에 게임포털을 적용해 스마트폰 등 별도의 기기 연결 없이 차량에 내장된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구남영 기자

## 삼성·LG, 친환경·고효율 경쟁력 입증

최고 기업상 ‘올해의 녹색상품’ 수상  
TV·냉장고·세탁기 등 15개 제품 선정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4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최고 기업상인 ‘녹색마스터피스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 기업상인 ‘녹색마스터피스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의 녹색상품은 제품의 환경 개선 효과를 전문가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전국 20여개 소비자 및 환경 단체와 400여명의 소비자가 평가단으로 참여해 친환경성과 상품성을 갖춘 제품을 선정한다.

녹색마스터피스상은 ‘올해의 녹색상품’을 11년 이상 수상한 기업에 자격이 부여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4년, 5년 연속 녹색마스터피스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녹색마스터피스상을 4년 연속 수상해 녹색 상품 개발과 녹색 경영 활동을 지속 인정받았다. 지난해



‘2024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 /삼성전자

에 이어 TV, 생활가전 등 전 분야의 15개 제품이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됐다.

삼성전자 제품 중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콤팩트 ▲비스포크 AI 스팀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 ▲비스포크 AI 무풍갤러리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비스포크 AI 인덕션 ▲비스포크 AI 인덕션 인피니트 라인 ▲비스포크 큐커 오븐 ▲비스포크 큐브 에어 인피니트 라인 ▲비스포크 큐커 멀티

▲비스포크 후드 에어 등 12개 제품이 선정됐다.

영상디스플레이 제품은 ▲네오 QLED 8K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 6 ▲스마트 사이니지 Q 시리즈로 3개 제품이 선정돼 삼성전자 제품 총 15개가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됐다.

LG전자도 생활가전 분야 15개 제품이 올해의 녹색상품에 뽑혔다. 이를 통해 최고기업상인 ‘녹색마스터피스상’도 5년 연속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인기상으로는 휘센 듀얼쿨 벽걸이 에어컨과 디오스 오브 제컬렉션 상냉장 하냉동 냉장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퓨리케어 정수기 ▲디오스 광파오븐 ▲스타일러 ▲디오스 식기세척기 ▲디오스 김치냉장고 ▲휘센 뷰에어컨 ▲디오스 컨버터블 냉장고 ▲트롬 위시타워 ▲트롬 위시콤보 ▲통돌이 세탁기 ▲디오스 인덕션 ▲퓨리케어 하이드로타워가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KG모빌리티 액티언 “더 넓고 럭셔리하게”

쿠페형 SUV 실내인테리어 공개

KG모빌리티(이하 KGM)가 다음달 출시되는 쿠페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액티언’의 실내 인테리어를 24일 공개했다.

액티언은 KGM의 디자인 철학인 ‘강인함에 따른 추진’을 바탕으로 ‘스타일리시언 다이내믹’을 내세운 외관 스타일에

맞춰 ‘슬림 앤 와이드’로 실내 인테리어 콘셉트를 정했다. 수평형 디자인으로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실내에는 12.3인치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일체형으로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새로운 사용자 경험(UX)이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단말기(AVNT)가 탑재됐다.

/양성운 기자

카카오

파리 올림픽 특집페이지

카카오가 오는 26일(현지시간)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특집페이지를 포털 다음에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커뮤니티 서비스가 더해져 이용자들이 함께 응원하며 올림픽을 한층 더 실감 나게 즐길 수 있다. 특집페이지는 PC 다음 첫 화면 배너와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서 접속 가능하다. /이혜민 기자

KT

사이버 보안 국제 인증

KT가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과 관련해 ISO/SAE 21434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CMS) 국제 인증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KT는 이번 사이버 글로벌 제품 안전 인증 기관인 UL설루션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혜민 기자 hyem@